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심장 관상동맥우회수술평가에서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스텐트 시술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우회 혈 관로를 만드는 고난이도 수술법으로, 1등급 획득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치료에서 동일한 종별기관에 비하여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흉부외과는 장기간 혈관 유지가 가능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환자 모두에게 시행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수술 후 30일 이내 또는 입원기간 내에 사망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평가 결과로 관내 지역 병원에 있어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잘하는 병원’임이 입증됐다.



재활로봇 연구팀, 중국 왕징병원과 합동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로봇 연구팀은 최근 중국 왕징병원과 ‘보행 재활로봇 EXOWALK(엑소워크)’에 대한 공동 임상연구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재활로봇 연구팀과 재활의학과, 중국 왕징병원 의사 및 치료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공동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공유와 성과발표 등 추후 계획을 논의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로봇 연구팀은 2016년 결성 이후, 뇌졸중 환자에게 실제로 이동하면서 보행이 가능한 형태의 재활 로봇을 적용해 보행능력과 균형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후, 본원 재활로봇 연구팀 주관으로 학술연구 및 진료에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중국 북경의 중의과학원 왕징병원과 엑소워크를 적용한 공동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는 “현재 의료로봇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앞으로 한국의 재활 로봇 시스템 선진화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 환자안전 주간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환자,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피실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보호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인 Speak Up 캠페인을 입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환자확인’, ‘낙상 예방활동’, ‘진료과정 참여’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Speak Up 교육 내용이 담긴 각 티슈를 증정하며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및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발판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대상, 병원설명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본원 4층 명성세미나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병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현수 교육연구부 차장의 진행으로 이진호 의료원장 겸 병원장, 조성민 기획처장, 이해원 의과대학 부학장을 비롯해 4학년 지도교수, 전공의 수련위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변화하는 수련환경에 따라 본원도 적극 대응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모교 출신 학생들이 모교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광기 교육연구부장은 “전공의 근무환경 및 급여와 당직비 등이 대폭 개선되었고,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17년 한방병원 의무기록 우수과 및 우수의 표창

EMR 위원회는 최근 의무기록 작성이 우수한 2017년도 한방병원 의무기록 우수의를 선정했다.

우수과는 한방재활의학과 김민지 전공의, 침구과 이연선 전공의가 선정되었으며, 표창장과 함께 상금 20만 원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EMR 위원회는 한 해 동안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 주신 진료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내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대비하여 의무기록 작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